

# 충남지역 창의인력 실태 분석

## 충남의 창의인력, 경제규모에 비해 낮은 수준

### ‘창의인력이란?’

창의인력을 정의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창의적 직업군에 종사하는 인력을 창의인력으로 보는 것이다. Florida(2004)는 창의인력(creative class)을 창의핵심그룹(super-creative core)과 창의전문가그룹(creative professionals), 문화예술그룹(bohemian)으로 구분한다. 창의핵심그룹은 새로운 아이디어, 콘텐츠, 기술 등을 직접 만들어 내는 집단으로서 과학자, 건축가, 디자이너, 엔지니어, 대학교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창의전문가그룹은 복잡한 지식체계를 활용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하는 집단들로서 주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지식지향적 업무활동에 종사하는 경영관리자, 금융재정 분석가, 변호사 등을 포함한다. 보헤미안은 문화와 예술 분야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이들 창의인력은 자유롭고 개인주의적 생활양식을 선호하며 문화적 재화(cultural goods)에 대한 소비성향이 강하고, 새로운 경험을 가능케 하는 실험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 ‘우리나라의 창의인력은 선진국에 비해 미흡’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창의인력 수는 492.9만명으로 전체 직업 종사자의 22.2%, 총인구 대비로는 10.1%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의 총종사자 대비 창의인력의 비중이 30~37%인데 비해 우리나라 창의인력의 비중은 낮은 수준이고, 이 비중이 지난 10년간 거의 변함이 없다. 창의인력의 비중 추이를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의 창의인력 비중이 27.0%로 제조업의 12.6%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산업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이러한 격차는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보다 중요한 문제는 제조업의 창의인력 비중이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는 점이다. 제조업 종사자중 창의인력의 비중이 2000년 20.2%에서 2010년 12.6%로 급감하였는데, 제품제조 경쟁력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산업의 두뇌기능(연구개발, 설계, 디자인, 엔지니어링 등)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충남의 창의인력,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인데 성장률은 높아’

충남의 창의인력 전국대비 비중은 2.9%인데, 총종사자수

기준으로 보면 충남의 비중이 4.5%인 점을 감안하면 충남의 창의인력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각 시도별로 지역내 총종사자 중에서 창의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해보면, 서울의 창의인력 비중이 29.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전이 27.9%로서 두 번째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충남은 총종사자 대비 창의인력 비중이 14.4%로 나타나 전남과 경북 다음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00~2010년간 창의인력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전체 창의인력의 경우 경기의 성장률이 3.7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충남의 성장률이 2.96%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충남은 창의핵심인력의 연평균 성장률에서도 경기 다음으로 높은 4.99%를 보이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인력에서는 충남의 성장률이 가장 높아 10.82%를 보였다. 2010년 현재 충남도 내에서 창의인력이 가장 많은 지역은 천안시이며, 그 뒤를 아산시와 서산시가 잇고 있다. 총종사자 대비 창의인력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계룡시로 24.2%를 보이고 있는데, 계룡시는 지난 10년간 창의인력의 성장률이 충남도 내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다.

### ‘창의인력의 확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창의인력(Creative workers)이 보유하는 지식과 아이디어는 지역의 인적자본, 혁신성을 증가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창의인력의 높은 교육 수준과 창의적 능력은 지역의 활력과 성장에 큰 기여를 한다. 창의인력의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지역에 창의형 산업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기업 및 산업 생태계를 창의적으로 만드는 요소로는 첫째, 생태계 전체를 리드하는 핵심 주체(keystone)가 있어야 하고, 생태계의 구성주체들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common assets)과 플랫폼이 존재해야 한다. 둘째, 생태계 구성주체 간 상호신뢰와 협력기반이 존재해야 한다. 산업융합시대에는 이러한 협력기반이 특히 더 중요한데, 일정 지역 내 공간적 집적의 확대 및 클러스터링의 강화가 기업 간 제품의 기술 분화와 차별화를 확대하여 지역 내 협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셋째, 창의형 인프라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창의형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인력양성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도전적 R&D를 수행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저자 \_ 산업연구원 김영수



# 충남의 창의인력 성장을 위한 현황 파악하기

## ★ 창의인력이란,

창의핵심그룹(super-creative core)과 창의전문가그룹(creative professionals), 문화예술그룹(bohemian)으로 구분함

### 창의핵심인력

새로운 기술, 창의적 콘텐츠를 만들어내 새로운 기술, 창의적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과학, 정보통신, 공학, 보건·사회복지, 교육 관련 전문가 집단

### 창의전문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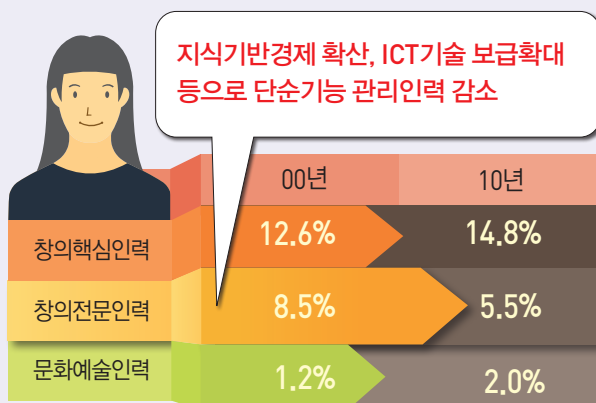
기존 지식의 창의적 적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공공 및 기업 고위직, 관리직, 법률·행정 전문직, 경영·금융전문가 집단

### 문화예술인력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종사자를 의미

## ★ 지난 10년간(2000~2010년)

우리나라 창의인력의 유형별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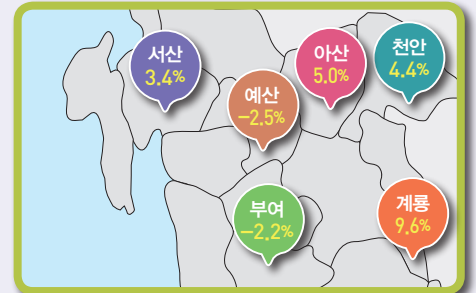


## ★ 충남의 창의인력 성장은

비교적 빠른편 (2000~2010년) 성장률

전국	충남
1.89%	2.96%

## ★ 충남의 창의인력 현황은?



※ 도시지역에 창의인력이 집중된 분포  
연평균 성장률(2000~2010년)

서울 29.5%

충북 17.1%

충남 14.4%

대구 22.1%

부산 20.7%

전남 12.6%

※ 충남의 총 종사자 대비 창의인력 비중은 낮은 편 (2010년)

## ★ 지역 창의형 산업생태계 조성 필요

